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 Vol. 19, No. 3, 211-232

인간생태체계 모형(Human Ecosystem Model)을 바탕으로 한 진로적응성과 가족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모형 검증: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송 보 라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가족환경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 발달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환경 변인들을 인간생태체계 모형에 근거하여 구조화한 뒤 모형검증을 통해 이론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관계모형과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 399명(남172명, 여227명)을 대상으로 자기성장주도성, 진로미래, 부·모자율성지지,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부모 간의 갈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 결과, 외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체계 수준이 높아지며, 중간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미시체계 수준이 높아지고, 미시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지는 완전매개 모형이 우수한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 집단에서는 외체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시사하는바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적응성, 인간생태체계 모형, 가족환경, 성차

---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 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 50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www.kci.go.kr

세계화, 기술의 발전, 조직구조의 변화, 일에 대한 가치의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는 개인의 진로를 종전의 것과 다르게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발달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Gothard, 2001). 예를 들어, 진로세계가 점차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되었던 기존의 진로패턴이 변화되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Littleton, Arthur, & Rousseau, 2000). 또한 진로발달에 대한 객관성과 주관성이 상호의존적임이 밝혀짐에 따라,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인식과 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진로발달 개념들 중에서 본 연구는 Hall(2002)의 진로적응성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JVB)에는 최근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논문의 게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Ferrari 등, 2012),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개성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Hirschi, 2010; Duffy, 2010; Porfeli & Savickas, 2012; Soresi & Nota, 2012; McMahon 등, 2012; Santilli 등, 2012; Rossier 등, 2012; De Guzman & Ok, 2013; Oncel, 2014; Tien 등, 2014; Shulman 등, 2014; Coetzee & Harry, 2014).

진로적응성

Hall(1996)은 프로테안 경력(Protean career)을 소개하면서 적응성(adaptability)을 21세기에 요구되는 진로 상위역량(Career meta-competencies)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였다. 조직에 기반을 둔 기존의 진로개념이 쇠퇴함에 따라 개인의 진로역량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진로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하며 주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Hall(1996)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진로태도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대안적인 진로발달모델에도 부합함에 따라 설득력을 얻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Littleton, Arthur, & Rousseau, 2000; Gelatt, 1989; Krieshok 등, 2009; Krumboltz, 2009; Pryor & Bright, 2011; Pearlman & Barney, 2000).

Hall(2002)은 적응성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함께 동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적응성을 설명할 때 개인의 태도와 신념 등 반응경향성을 강조한 입장(Savickas 등, 2005)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적응성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무되는 경향이라고 본 입장(Featherman 등, 1990)과 같은 관점을 지닌다. 즉,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향을 내포함으로써, Hall(2002)의 '적응성'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동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는 개개인 그 자체보다 '환경 안에 놓인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Hall(2002)의 진로적응성은 개인의 동기수준에 따라 스스로 진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념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all(2002)의 진로적응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 변인으로 구인화 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에 능동적, 적극적,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Robitschek, 1998).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응

www.kci.go.kr

력을 발휘하고 더욱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지인 적응적 동기(Hall, 2002)를 대체할 수 있는 변인이다. 진로미래는 낙관적이고 유연한 진로태도와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의 진로에서 보다 수월하게 적응해나갈 가능성이 높고(Rottinghaus 등, 2005), 이는 진로적응을 위한 잠재력(Hall, 2002)을 대체할 수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 변인은 진로적응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아우름으로써 Hall(2002)의 진로적응성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구인이 될 수 있다.

인간생태체계모형

적응성의 일반적 모델(A General model of Adaptabilit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경과 맥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Hall, 2002). 능동적인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조직하는 점도 강조하지만(Weick, 1996), 개인의 진로태도는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형성되며, 그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고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hanahan & Elder, 2001; Shanahan & Hoffer, 2005). 따라서 개인의 능동적인 진로발달로서의 진로적응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내적 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인간생태체계 모형(human ecosystem model)을 바탕으로 진로적응성의 발달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 모형은 환경 속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틀로서 개인이 속한 환경을 몇 개의 체계로 구분한 뒤, 각 체계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 혹은 발달수준을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 물리적 환경 간의 복잡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밝혀왔다. Bronfenbrenner(1979)는 환경의 각 체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각 환경체계간의 상호 호혜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도 강조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서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 등을 의미하고,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환경으로서 미시체계와 외체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며, 외체계(exosystem)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장면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환경체계이다(Bronfenbrenner, 1992).

가족환경요인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의 생태체계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특히 진로발달에 있어 가족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랫동안 직업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Bordin, Nachman, & Segal, 1963; Osipow, 1973). 또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또래보다 가족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이라는 사실이 최근까지도 검증된 바(Slaten & Baskin, 2014), 가족환경 내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요인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진로적응성 즉,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발달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선행연구를 고

www.kci.go.kr

찰하였다.

일찍이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이뤄진 다수의 연구들은 가족환경의 각 체계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왔다(Bratcher, 1982; Lopez & Andrews, 1987; Zingaro, 1983).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 월수입 등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소로서 외체계에 해당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진로발달이 더디고 폐쇄적이며(Caldera, Robitschek, Frame, & Pannell, 200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탐색에 불안과 압박을 느껴 충분한 탐색 없이 서둘러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Scott & Church, 2001). 한 편, 부모 간의 갈등수준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대상들이 형성하는 가정의 분위기로서, 외체계와 미시체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부모 간 갈등수준은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으로서(Erel & Burman, 1995),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전반적인 심리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Jouriles, Barling & Oleary, 1987). 가족응집성은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로서 서로 얼마나 밀착된 분위기인지를 나타내며, 가족적응성은 구성원들이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로서 얼마나 유연한 분위기인지를 나타낸다(Olson 등, 1985). 이 두 수준이 양호할수록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박지영, 1995),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지며(맹영임, 2001),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축하게 된다(김민경, 2002). 아울러 부모 자녀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개인이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양육방식으로서 미시체계에 해당된다. Hoffman(1984)은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적응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Tesser, Forehand, Brody, & Long, 1989).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또한 유능성의 자각과 진로정체감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발달을 도모하였고(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자기성장주도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도 밝혀진 바 있다(김지근, 2009).

이상과 같이 각 체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을 미시체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및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을 중간체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을 외체계로 분류하여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로 구성된 진로적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때 체계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는 인간생태체계 모형의 원리를 고려하여(Bronfenbrenner, 1979), 외체계 부터 개체에 이르기까지 각 체계가 직·간접적으로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이론모형을 설정하였다.

성별 차이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성차가 발견될 것임을 가정하였다. Bronfenbrenner(1992)는 인간발달을 연구하기 위한 모든 연구 설계에서는 반드시 성별(gender)과 관련된 과정적, 결과적 차이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진로

www.kci.go.kr

발달 과정에 대한 남녀의 질적 차이가 보고된 바 있고(Arbona & Novy, 1991; Amstrong, Crombie, 2000; Gary & O'Brien, 2007), 남성과 달리 여성의 진로태도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진로장벽 등 자신의 환경적 요소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성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박용두, 이기학, 2008). 즉, 남녀의 진로에 대한 태도가 진로적응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앞서 이미 질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성차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애착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더욱 예측가능하다.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발달의 관계는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Ryan, Solberg, Brown, 1996), 특히 후기 청소년기의 애착수준은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Schulthesis & Blustein, 1994). 진로발달의 능동적인 측면을 살핀 연구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관리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이 남자보다 여자 대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 여성이 주도적 행동을 함에 있어서 부모의 승인과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함이 밝혀졌다(Lucas, 1997). 뿐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과 달리 진로 타협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와 명성과 같은 외적 조건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Blanchard & Litchtenberg, 2003)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발달 과정 중 특히 외체계에 대한 인식에서 성차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에서 위기와 수행을 거쳐 진로를 구축해 나가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로만족을 느꼈고(이상희, 서유란, 2012), 성역할 등의 현실적 장벽과 자신의 내적 동기간의 타협 과정이 여성에게서는 본격적인 진로발달 이전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우영지, 이기학, 2010). 즉,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진로적응 과정에서 남성은 외체계의 영향력을 주요한 요인으로서 인식하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현실적인 진로장벽과 이미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외체계의 영향력이 중간체계나 미시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족환경 내에서 남녀의 진로적응성이 발현되는 양상은 외체계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가족환경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 발달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족변인들과 진로적응성 변인들을 인간생태체계 모형에 근거하여 구조화하고, 모형검증을 통하여 이론모형의 적합성과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인간생태체계 모형에 따라 가족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가? 둘째, 남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의 영향을 모두 받는가? 셋째, 여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외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99명(남172명, 여22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연령 평균은 22.34세(SD=2.42)였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3명(20.8%), 2학년 35명(8.8%), 3학년 111명(27.8%), 4학년 170명(42.6%)이었다. 전공별 분

www.kci.go.kr

포는 문과대학 156명(39.1%), 사회과학대학 73명(18.3%), 이공과대학 70명(17.5%), 상경대학 33명(8.3%), 법과대학 15명(3.8%), 기타대학 48명(12.0%), 불응답자가 4명(1.0%)을 차지하였다. 자료수집의 전 과정은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윤리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개체 변인

자기성장주도성. 자기성장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bitschek(1998)이 개발하고 김혜영(2008)이 번안 및 타당화한 자기성장주도성 척도(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 PGI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9문항의, “내 삶에서 무언가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나는 그 변화과정을 주도적으로 시작한다.” 등,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장주도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김혜영(2008)의 연구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미래. 진로미래를 측정하기 위하여 Rottinghaus 등(2005)이 개발하고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진로적응성(6문항, “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등), 진로낙관성(11문항, “진로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힘이 난다.” 등),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3문항, “나는 나 자신의 직업적 흥미들을 알고 있다.” 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우영지와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 요인별로 .86, .90,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변인

부모의 자율성 지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Grolnick 등(1991)이 개발하고 김지근(2009)이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에 대한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s; PO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와 모의 자율성 지지에 대해 각각 7문항씩 총 14문항의,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해준다.” 등,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율성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지근(2009)의 연구에서 부 척도는 .86, 모 척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 척도 .85, 모 척도 .83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효율적 의사소통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의,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10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박진미(2004)의 연구에서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중간체계 변인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등(1985)이 개발하고 한상분(199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가족 적응 및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 FACES Ⅲ)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응집성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과,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등, 적응성 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등, 총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 응집성 .83, 적응성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 .89, 적응성 .83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갈등. 부모 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yrch 등(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간 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9문항의,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에는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간 갈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정혜정과 최인실(2004)의 연구에서 요인별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외체계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부와 모 각각 1문항씩 총 2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구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50만원, 350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의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생성하여, 이론적으로 도출한 모형과 실제 자료가 부합되는지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모수치 추정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했으며, 분석 절차로 2단계 접근(Gerbing & Anderson, 1988)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였고, 그 후 이론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은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38)=91.354(p<.001)$, TLI=943, CFI=.967, RMSEA=.059(90% CI:.044~075)로 나왔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값은 .06이하이면 매우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적합도를 보여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

www.kci.go.kr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경로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요인부하량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론모형 검증에서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과 TLI, CFI, RMSEA를 함께 확인하였다. 또한 유의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된 최종 확정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1986)의 Z공식을 이용하였다. 끝으로 성별에 따라 관계모형 및 경로계수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남녀 각 집단의 이론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와 경로계수의 검증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는 대부분의 미시체계(부·모의 자율성지지,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와 중간체계(가족응집성, 가족적응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											
2	.74***										
3	.19***	.25***									
4	.28***	.32***	.43***								
5	.27***	.31***	.55***	.60***							
6	.20***	.26***	.49***	.46***	.67***						
7	.16***	.26***	.53***	.48***	.58***	.73***					
8	-.04	-.11*	-.39***	-.29***	-.46***	-.52***	-.39***				
9	.08	.06	.09	.01	.06	.09	.06	-.21***			
10	.03	.00	.02	-.01	.04	.05	.03	-.15**	.55***		
11	.04	.05	.11*	.07	.15**	.15**	.05	-.18***	.31***	.29***	
M	38.77	68.55	35.27	36.63	66.75	34.88	33.69	47.86	3.90	3.59	3.99
SD	6.89	11.38	7.21	7.42	13.01	7.14	6.41	15.18	.81	.71	1.05

***p<.001, **p<.01, *p<.05.

주. 1: 자기성장주도성 2: 진로미래 3: 부 자율성지지 4: 모 자율성지지 5: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 6: 가족응집성 7: 가족적응성 8: 부모 간 갈등 9: 부 교육수준 10: 모 교육수준 11: 가구월수입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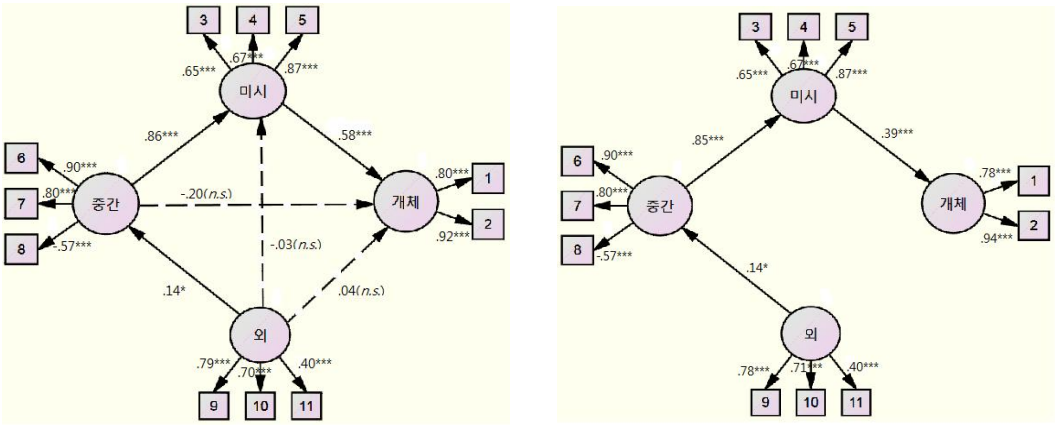
성)의 가족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p<.001). 그러나 중간체계의 부모 간 갈등은 자기성장주도성과 유의하지 않았고, r=-.04, *n.s*, 진로미래와도 비교적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r=-.11, p<.05, 외체계(부・모 교육수준, 가구월수입)의 가족변인들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다(p>.05). 또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가족변인들은 모두 서로에게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으며(p<.001), 중간체계의 부모 간 갈등만이 외체계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는 남녀 모두에서 미시체계의 가족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p<.001). 그리고 남학생의 진로적응성 변인들은 중간체계와 외체계에서 가족응집성, r=.19, p<.05; r=.30, p<.001, 가족적응성, r=.25, p<.01, 부・모의 교육수준과, r=.15, p<.05; r=.15, p<.05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가족응집성과, r=.21, p<.01; r=.25, p<.001, 가족적응성만이, r=.21, p<.01; r=.27, p<.001, 진로적응성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두 집단에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의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p<.001).

진로적응성과 생태체계학적 가족변인들 간의 매개모형 검증

이론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χ^2(38)=91.354(p<.001), TLI=943, CFI=.967, RMSEA=.059(90% CI:.044~075),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가 개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의 좌).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이 개념적으로 해당 체계에 잘 묶이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부



***p<.001, *p<.05.

주. 1: 자기성장주도성 2: 진로미래 3: 부 자율성지지 4: 모 자율성지지 5: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 6: 가족응집성 7: 가족적응성 8: 부모 간 갈등 9: 부 교육수준 10: 모 교육수준 11: 가구월수입

그림 1. 이론모형(좌) 및 확정모형(우)

www.kci.go.kr

교육수준(β=.79, p<.001), 모 교육수준(β=.70, p<.001), 가구월수입은(β=.40, p<.001) 모두 유의하게 외체계에 묶였고, 가족응집성(β=.90, p<.001), 가족적응성(β=.80, p<.001), 부모 간 갈등 수준은(β=-.57, p<.001) 모두 유의하게 중간체계에 묶였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지지(β=.65, p<.001; β=.67, p<.001),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β=.87, p<.001) 역시 모두 유의하게 미시체계에 묶였으며, 자기성장주도성과(β=.80, p<.001) 진로미래도(β=.92, p<.001) 유의한 수준으로 개체에 묶였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환경 변인들의 생태체계별 분류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χ^2(38, 399)=91.354(p<.001), TLI=.943, CFI=.967, RMSEA=.059(90% CI:.044~075). 그러나 이론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개체에 대한 중간체계와 외체계(β=-.20, t=-1.30, p>.05; β=.04, t=.65, p>.05), 미시체계에 대한 외체계(β=-.03, t=-.57, p>.05)의 직접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의 분위기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자녀의 심리적 발달 수준에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제거한 뒤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다시 한 번 살펴본 결과, 모형 적합도가 다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χ^2(41, 399)=93.457(p<.001), TLI=.948, CFI=.968, RMSEA=.057(90% CI:.042~072). 수정된 모형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이는 이론모형인 부분매개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과 수정된 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Delta\chi^2$=2.103, Δdf=3, p>.05) 더욱 간명한 완전매개모형이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외체계가 중간체계와 미시체계를 매개로 하여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확정모형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확정모형에서는 중간체계에 대한 외체계와(β=.14, t=2.17, p<.05) 미시체계에 대한 중간체계(β=.85, t=11.56, p<.001), 그리고 개체에 대한

표 2. 이론모형과 확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p	CFI	TLI	RMSEA (90% CI)
이론모형	91.354	38	.000	.967	.943	.059 (.044 - .075)
확정모형	93.457	41	.000	.968	.948	.057 (.042 - .072)

표 3. 확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S.E.	β	t
외체계 → 중간체계	1.40	.65	.14	2.17*
중간체계 → 미시체계	.77	.07	.85	11.56***
미시체계 → 개체	.45	.08	.39	5.58***

***p<.001, *p<.05.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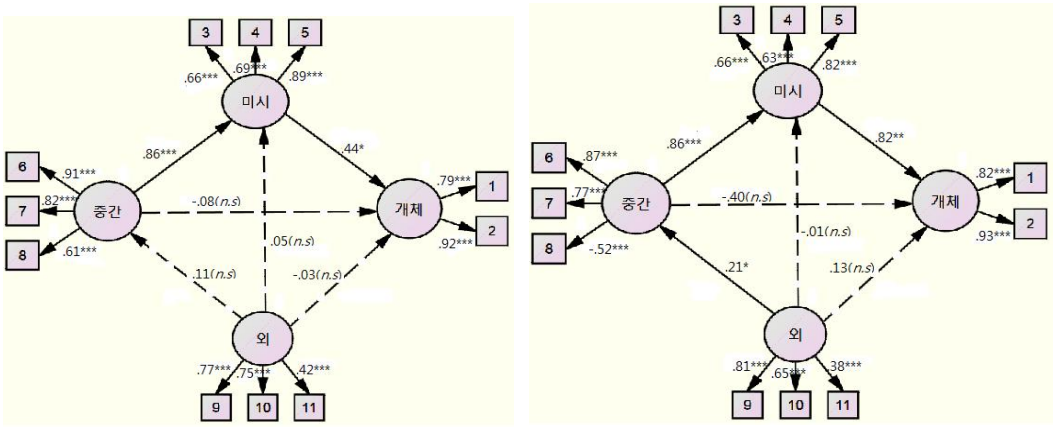
미시체계(β=.39, t=5.58, p<.001)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의 우, 표 3). 즉,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으로 구성된 외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간 갈등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으로 구성된 중간체계 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중간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미시체계 수준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시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진로적응성 즉,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미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정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외체계는 중간체계를 매개로 하여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를 매개로 하여 개체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1.96에 비교하여 p<.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 결과, 외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에서 중간체계의 매개효과는 Z=2.13(p<.05)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체계와 개체의 관계에서 미시체계의 매개효과는 Z=5.01 (p<.001)으로 나타나 이 또한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즉, 외체계와 중간체계 그리고 미시체계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진로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속한 가정환경의 각 체계가 체계 간의 연결고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살필 때 가정환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차 모형 검증

성별에 따라 인간생태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p<.001, *p<.05.

주. 1: 자기성장주도성 2: 진로미래 3: 부 자율성지지 4: 모 자율성지지 5: 기능적 가족 의사소통 6: 가족응집성 7: 가족적응성 8: 부모 간 갈등 9: 부 교육수준 10: 모 교육수준 11: 가구월수입

그림 2. 여학생(좌)과 남학생(우)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학적 가족변인의 구조모형

www.kci.go.kr

한 진로적응성과 가족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각 집단을 대상으로 이론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2). 여학생의 경우 모형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hi^2(38, 227)=79.71(p<.001)$, TLI=.927, CFI=.958, RMSEA=.070(90% CI:.048~091), 외체계에서 중간체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eta=.11$, $t=1.28$, $p>.05$. 즉, 중간체계와 미시체계만을 토대로 개체의 진로적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여학생에게서는 가정의 분위기와 양육방식 등이 진로적응성 발달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한 편, 남학생의 경우에도 모형적합도는 적합하게 나타났으나, $\chi^2(41, 172)=59.18(p<.001)$, TLI=.941, CFI=.966, RMSEA=.057(90% CI:.025~084), 외체계에서 중간체계로 가는 경로가 여학생과는 달리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21$, $t=2.08$, $p<.05$. 즉, 남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다양한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로적응성의 발달과정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이론모형의 모형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각각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남녀 각 집단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여학생의 경우, 중간체계와 개체의 관계에서 미시체계의 매개효과는 Z=3.61($p<.00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외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에서 중간체계의 매개효과는 Z=2.02($p<.05$), 중간체계와 개체의 관계에서 미시체계의 매개효과는 Z=3.44($p<.001$)로 나타나 모두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 집단

표 4. 여학생과 남학생의 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p	CFI	TLI	RMSEA (90% CI)
여학생	79.71	38	.000	.958	.927	.070 (.048 - .091)
남학생	59.18	38	.015	.966	.941	.057 (.025 - .084)

표 5. 여학생과 남학생 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비교

	경로	B	S.E.	β	t
여학생	외체계 → 중간체계	1.22	.95	.11	1.28
	중간체계 → 미시체계	.71	.08	.86	9.12***
	미시체계 → 개체	.53	.25	.44	2.12*
남학생	외체계 → 중간체계	1.81	.87	.21	2.08*
	중간체계 → 미시체계	.96	.13	.86	7.24***
	미시체계 → 개체	.92	.34	.82	2.72**

***$p<.001$, **$p<.01$, *$p<.05$.

www.kci.go.kr

에서는 외체계에 속하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수입이 종속변인인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강조되기 시작한 진로적응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요인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생태체계 모형을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를 구조화하고 구조모형의 적합성과 성차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능동적 진로발달이 환경체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였고, 나아가 진로적응성을 촉진할 때 남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미시체계 변인들과 진로적응성 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이는 가족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의미한다. 후기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대의 정신분석이론들(Mcgoldrick & Carter, 1980)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이나 가정의 월수입 수준은 진로적응성 변인들과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대신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은 중간체계와 미시체계의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가정의 월수입 수준은 가족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모 간의 갈등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 간의 갈등과 가정의 월수입 수준은 체계 간 관련성으로 인해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남녀 모두에서 진로적응성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남학생 집단에서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진로적응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성장주도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중간체계와 달리 외체계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인간생태체계 모형에 따라 가족환경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가설 1). 이론모형에서 부분매개의 경로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족환경의 각 체계 간 관계가 완전매개 모형으로써 검증되었는데, 이는 Bronfenbrenner(1992)가 언급한 체계 간 상호호혜성의 의미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외체계는 중간체계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로, 미시체계는 개체로 이어지는 직선적 경로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다시 말해, 개인은 결국 직접 경험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다양한 가족 환경 간의 긴밀한 연결로써 개인의 능동적인 진로발달 수준이 확보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능동적인 진로적응 태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 가족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진로적응성 촉진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통합성과 개별성의 균형, 즉 가족과의 적절한 분리개별화

www.kci.go.kr

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Bowen(1978)의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의 영향을 모두 받음을 확인하였다(가설 2). 특히 외체계의 영향력이 나타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남성이 진로 타협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와 명성과 같은 외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Blanchard & Litchtenberg, 2003).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외체계의 영향력이 남성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남성들은 진로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p.58, 101)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진로적응성을 촉진시키고자할 때 그가 속한 가정환경의 다양한 차원에 주목하고, 특히 진로상담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에 대해서 다뤄줄 필요가 있겠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외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가설 3).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달리 외체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중간체계가 미시체계의 완전매개를 바탕으로 개체에 영향을 주었다.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시체계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중간체계인 가족의 역기능적 분위기가 17%의 설명력으로 남성(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Ryan, Solberg, & Brown, 1996)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현실적 조건보다 개인의 선호를 중요시 하는 특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지지 등 직접적인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의 승인과 정서적 지원 등 애착의 정도에 더욱 민감하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도 부모의 의견을 따를 때 어느 정도의 진로만족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중간체계와 미시체계만으로 이뤄진 진로적응성에 대한 완전매개 모형이 여학생 집단에서 검증된 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여성의 진로적응성은 가족 구성원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그 수준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의 능동적 특성에 주목하여 Hall(2002)의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구인화가 이뤄진 점이다. 앞으로 진로세계에서의 성공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의 차원을 포괄하므로(Arthur et al., 2005), 개인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지가 진로세계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큰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진로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기존의 여러 진로적응성 척도에 능동적 동기 요소가 추가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진로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인간생태체계 모형을 도입한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발달 과정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체계적 탐색을 가능케 하였으며, 인간생태체계 모형이 진로발달 영역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모형임을 밝혔다. 셋째, 진로적응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있음을 밝힌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진로적응 과정을 이해할 때 인간생태체계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기

www.kci.go.kr

준의 마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성차를 유발하는 환경체계를 확인함에 따라, 환경을 인식하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적응성을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이어진다면, 개인의 진로적응을 돕는 더욱 세밀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제 진로개입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진로개입에 있어서 가족환경의 고려가 중요함을 밝혔다. 즉, 능동적인 진로태도를 촉진할 때 가족환경의 체계별 역할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상담자는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진로상담자는 특정한 가족환경 체계의 규칙, 경계, 항상성 등이 개인의 진로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하고, 내담자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나 프로그램이 가족원 간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토대로 운영될 필요성도 보여준다. 둘째, 진로개입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밝혔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결과는 관계모형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촉진적 진로상담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현대에 여성 직업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남녀 차이를 밝혀 개입의 구체적인 방향키를 제공한 점은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21세기의 진로세계에서 강조되는 개념과 관점을 기초로 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발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생태체계 모형에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을 추가시킨 생물생태학적 모형(Bioecological model; Bronfenbrenner & Ceci, 1994)도 진로적응 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인지발달 영역에서는 핵심지식 관점에 따라, 심리적 능력의 발달 또한 선천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정교해진다고 주장해왔다(Geary & Bjorklund, 2000; Friedman & Leslie,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영향력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천적인 정신적 기능을 비롯하여 신체조건이나 기초적인 운동, 감각 등 생물학적 변인들이 진로적응성의 변화를 어떻게 야기하고 내재화 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측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체계의 바깥 영역에 자리하는 거시체계와 시간체계까지도 포함시켜 검증한다면 진로적응성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고 깊어질 것이다.

둘째, 전 생애 진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한 환경체계 간의 완전매개 모형을 전 연령대에서 검증해볼 것을 제안한다. 다만, 전 연령대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로개발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역할의 개념으로서 진로를 바라보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Super, 1980), Lent와 Brown(2008)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 전체적인 삶의 만족감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적응성이란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삶을 설계해나가는 상위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www.kci.go.kr

진로에 있어서 주관적인 실패감을 경험한다는 연구(Hall & Chandler, 2005)는 전 생애 진로를 조망하는 연구 분야에서 개인의 진로적응성이 포괄해야할 범위를 시사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학문적, 실용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학업성취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피실험자의 60% 이상이 3, 4학년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소재 여대생과 비교할 때 서울소재 대학생들의 가족 지향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장하진, 2000)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조건의 참가자들을 추가하여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인화 하면서 이론적 개념만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차원의 진로적응성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 탐색과 통계적 검증 절차가 후속 연구에서 요구된다. 셋째, 선행변인의 설정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즉,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인간생태체계 모형에서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시체계 변인은 생략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 따라, 앞으로 진로적응성을 살피는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변인들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간, 미시체계의 완전매개 역할이 검증된 바, 사회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이 해당되는 거시체계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풍토를 고려하면, 부모자녀 간의 밀착된 관계가 개인의 주체적인 진로적응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세계의 흐름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서로 상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인 거시체계를 포함시켜 개인의 진로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 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김민경 (2002).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완석, 김선희 (2005). 여성의 커리어선택의 타협과정: 여성의 역할지향성과 포부 수준에 따른 타협 요인의 선호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3), 345-373.

김지근 (2009). 부모와의 친밀-개별화가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 주도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영임 (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 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잡단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박지영 (1995).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및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여성과 직업.

www.kci.go.kr

시그마프레스. p.58, 101.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우영지, 이기학 (2010).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47-559.

장하진 (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여성학, 16(2), 35-74.

정혜정, 최인실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73-791.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 (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mstrong, P. I., & Crombie, G. (2000). Compromises i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from grades 8 to 10.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82-98.

Arbona, C., & Novy, D. M. (1991). Career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Black, Mexican American, and Whit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3), 231-239.

Arthur, M. B., Khapova, S. N., & Wilderom, C. P. (2005). Career success in a boundaryless career worl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77-202.

Arthur, M. B., & Rousseau, D. M. (Eds.). (1996).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Oxford University Press.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438-447.

Blanchard, C. A., & Lichtenberg, J. W.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250-271.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

Bordin, E. S., Nachmann, B., & Segal, S. J. (1963). An articulated framework for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2), 107.

Bowen, M. (1978). *Family treatment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Bratcher, W. E. (1982).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career selec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2), 87-91.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Bronfenbrenner, U., & Ceci, S. J. (1994). Nature-nuture reconceptualized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 bioecological model. *Psychological review, 101*(4), 568.

Caldera, Y. M., Robitschek, C., Frame, M., &

www.kci.go.kr

Pannell, M. (2003). Intrapersonal, familial, and cultural factors in th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Mexican 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09.

Coetzee, M., & Harry, N. (2014).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employees'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90-97.

Collin, A. (1997). Career in context.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5*(4), 435-446.

De Guzman, A. B., & Ok, K. C. (2013). The relations of employability skills to career adaptability among techn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3), 199-207.

Dobrow, S. R. (2013). Dynamics of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musicia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4), 431-452.

Duffy, R. D. (2010). Sense of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420-430.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

Ferrari, L., Nota, L., & Soresi, S. (2010). Time perspective and indecision in young and older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38*, 61-82.

Frank, S. J., Avery, C. B., & Laman, M. S. (1988).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729.

Friedman, O., & Leslie, A. M. (2004). A developmental shift in processes underlying successful belief-desir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8*(6), 963-977.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1-735.

Gray, M. P., & O'Brien, K. M. (2007). Advancing the assessment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3), 317-337.

Geary, D. C., & Bjorklund, D. F. (2000). Evolutionary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71*(1), 57-65.

Gelatt, H. B. (1989). Positive uncertainty: A new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52.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MR), 25*(2).

Gothard, W. P. (Ed.). (2001). *Careers guidance in context*. Sage.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www.kci.go.kr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

Hall, D. T. (1996). Protean careers of the 21st century.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4), 8-16.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Vol.107). Sage.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Hirschi, A. (2010).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personality and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 39-49.

Hoffman, L. W. (1984). Work, family,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7*, 223-282.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ouriles, E. N., Barling, J., & O'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165-173.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Littleton, S. M., Arthur, M. B., & Rousseau, D. M. (2000). The future of boundaryless careers. *The future of career*, 101-114.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5*(6), 304-307.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1), 76-87.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23.

McGoldrick, M., & Carter, E. A. (Eds.).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McMahon, M., Watson, M., & Bimrose, J. (2012). Career adaptability:A qualitative understanding from the stories of older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62-768.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Öncel, L. (2014). Career Adapt-Abilities Scale:

www.kci.go.kr

Convergent validity of subscale scor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1), 13-17.

Osipow, S. H. (197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2nd ed.)* East Norwalk, CT, US: Appleton-Century-Crofts.

Pearlman, K., & Barney, M. F. (2000). Selection for a changing workplace. *Managing selection in changing organizations,* 3-72.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48-753.

Pryor, R., & Bright, J. (2011). *The chaos theory of careers: A new perspective on work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aylor & Francis.

Robitschek, C. (1998). Personal growth initiative: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4), 183-198.

Rossier, J., Zecca, G., Stauffer, S. D., Maggiori, C., & Dauwalder, J. P.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in a French-speaking Swiss sampl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ity and work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34-743.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

Salten, C. D., & Baskin, T. W. (2014). Examining the impact of peer and family belongingnes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young adults: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1), 59-74.

Santilli, S., Ginevra, M. C., Nota, L., & Soresi, S. (2012). *Time perspective and adaptability in a group of young temporary workers.* Poster session presented to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ime Perspective, Coimbra.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42-70.

Schultheiss, D. P., & Blustein, D. L.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2), 159-166.

Scott, D. J., & Church, A. T. (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Shanahan, M. J., & Elder, G. H. (2002). History, agency, and the life course.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8, pp. 145-186).

Shanahan, M. J., & Hofer, S. M. (2005). Social context in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Retrospect and prospec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www.kci.go.kr

Social Sciences, 60(Special Issue 1), 65-76.

Shulman, S., Vasalampi, K., Barr, T., Livne, Y., Nurmi, J. E., & Pratt, M. W. (2014). Typologies and precursors of career adaptability patterns among emerging adults: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xxx,* 1-11. in press.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6*, 159-186.

Soresi, S., & Nota, L. (2012, May). *La speranza e l'ottimismo nei programmi di orientamento: alcuni dati di ricerca* [Hope and optimism in career counseling programs: some research data]. I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in honor of M. D'Alessio. Roma: Università Sapienza.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Surrey, J. L. (1985).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Wellesley, Mass.: Wellesley College, Stone Center for Developmental Services and Studies.

Tesser, A., Forehand, R., Brody, G., & Long, N. (1989). Conflict: The role of calm and angry parent-child discussion i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3), 317-330.

Tien, H. L. S., Lin, S. H., Hsieh, P. J., & Jin, S. R. (2014).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in Macau: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259-265.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Weick, K. E. (1996). Enactment and the boundaryless career: Organizing as we work.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40-57.

Zingaro, J. C. (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for the career counselor.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1), 24-27.

1차원고접수 : 2014. 04. 27.
심사통과접수 : 2014. 09. 03.
최종원고접수 : 2014. 09. 2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 Vol. 19, No. 3, 211-232

The model validation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based on human ecosystem model: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students

Bora Song **Ki 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ut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development path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in family environment. Based on the human ecosystem model, various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ere structuralized, its validity confirmed through model validation, then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 and relation structure by gender difference were observed.399 university students in a 4-year program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172 males, 227 females) answered questions on personal growth initiative, career future, parental support on autonomy, functional family communication,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inter-parental conflict, socioeconomic status. All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1.0 and AMOS 18.0.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confirmed a full mediation model based on a significant path coefficient and validity; high macrosystem level results higher mesosystem level; higher mesosystem level results higher microsystem level; and higher microsystem level results higher career adaptability level. Furthermore, model validation was conducted by separating the data by gender to observe any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female students, the influence of exosystem was not significant, whereas it was with male students. The current study interpreted the results, and provided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Career Adaptability, Human Ecosystem Model, Family Environment, Gender Differences

www.kci.go.kr